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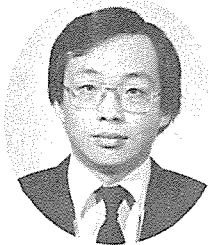
제 33 호 1985년 3월 1일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會員 여러분의 權益과 福祉를 위하여-

명 철 제 / 재무이사



친애하는 會員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유난히도 우리의 마음을 하얗게 해주는 기나긴 밤들이 많았던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紙面으로나마 회원 여러분께 人事드리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協會運營에 있어서 會員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大望의 1985년을 맞이하여 우리 협회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物理治療士 協會 自体 事務室을 갖게 되었습니다. 全會員 여러분의 끊임없는 協調와 더불어 역대 임원진들의 熱成이 혼합이 되어 15명 남짓한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조금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들께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회장님이하 여러 이사님들이 혹한속에도 동분서주하며 우리 전회원의 뜻이 담긴 보금자리를 물색하느라 빙판에도 넘어지고 손과 발이 터질듯한 어려움은 있었

지만 이제는 지나간 추억으로 돌리고 싶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會員 여러분!

우리의 物理治療士 協會 自体 事務室을 가졌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現 任員들의 어깨를 누르는 듯한 중압감은 무엇 일까요? 會員 여러분의 權益과 福祉를 爲하여 힘써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협회비 미납으로 인한 財政상의 문제입니다. 85년도 會費는 물론 전년도(84년도) 회비가 아직도 여러 會員들의 미납으로 협회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나'가 아닌 '우리'라는 共同体 意識을 가지고서 生活할 때 비로서 그것이 곧 나의 發展이며 또한 협회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협회 회원도 2,000여명이 (84년도 기준) 넘는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物理治療士 協會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國民健康을 담당하는 한 分野로서 壓力團體 또는 利益團體로 발돋움 할 때 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올해로 청년기로 접어드는 20주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물리치료 초창기에는 한해에 불과 기십명의 물리치료사들이 배출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천여명이나 되는 졸업생들이 전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成長을 하였지만 보다 더 튼튼하게 內實을 기하기 爲하여서는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밑거름이 되어서 協會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의 높으신 情熱과 高度의 知識으로 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기한없는 忠告와 助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 척의 배를 한 平生 동지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배를 휘어 감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노를 놓지않고 우리가 바라는 未來의 社會福祉 世界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힘차게 저어가야 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성의와 중지를 모으며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랑스러운 物理治療士 協會를 만듭시다. 저희 임원진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하여 보답고져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의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